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분석가들, “트럼프 대중 30% 관세 하반기까지 계속된다”
- Bloomberg: JP모건 CEO, “관세 여파로 침체 가능성 여전히 있다”

[미국 금융]

- WSJ: ‘30년 미 국채 금리 5% 돌파할 수 있다’

[뉴욕/뉴저지 메트로]

- WSJ: 뉴저지 트랜짓 기관사들 파업...통근자들 불편 겪어

[물류]

- WSJ: 미·중 관세 휴전으로 수입물량 늘면서 컨테이너 운임 상승

[주택]

- YahooFinance: 미국 단독주택 착공, 9개월 만에 최저치

[미 행정부 정책]

- The economist: 공화당, 약 3.7조 달러의 국가 부채를 증가시킬 법안 추진

[무역 전쟁]

- Bloomberg: 트럼프, “수주안에 다른 국가들 관세율 정하겠다”
- Bloomberg: “일본, 미 관세 협상 카드로 미 국채 재투자 및 자동차 재수입 가능성”
- WSJ: 3월 EU 대미 수출, 사상 최고치 달성...관세 시행 전에

[글로벌 경제]

- WSJ: 일본 경제, 1년 만에 처음으로 경제 둔화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Trump to Keep 30% China Tariffs Till Late 2025, Analysts Say 분석가들, “트럼프 대중 30% 관세 하반기까지 계속된다”

- 블룸버그가 최근 22명의 퍼드 메니저와 금융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중국산에 부과한 30% 임시 관세가 올해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 관세는 당초 145%보다 크게 낮지만 미국으로 향하는 중국 선적 물량의 70% 를 줄일만큼 여전히 높은 관세라는 것, 그리고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관세를 풀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 한편 다음 주 월요일 공식 발표되는 중국의 4월 산업 생산은 관세에 따른 수출 제한으로 둔화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Dimon Says Recession Remains a Possibility on Tariff Fallout JP모건 CEO, “관세 여파로 침체 가능성 여전히 있다”

- JP 모건의 CEO인 Jamie Dimon은 관세 여파가 계속해서 글로벌 경제에 영향 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침체 가능성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파리의 JP 모건 연례 글로벌 마켓 컨퍼런스에 참석하면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침체를 피하면 좋겠지만 이 시점에서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그는 또한 침체가 발생할 경우 그 지속 기간이나 규모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중국과의 긴장 완화도 지속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WSJ: U.S. 30-Year Treasury Yields Could Breach 5% ‘30년 미 국채 금리 5% 돌파할 수 있다’

- 자산운영사 BlueBay Asset Management는 메모를 통해 미 30년 국채 금리가 5%를 돌파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부분적으로 침체 우려가 줄어드는 점을 반영하지만, 또한 미국 예상에 대한 투자자들의 부채 우려도 반영한다고 말했다.
- 이 기관에 따르면 10년물 국채가 4.5%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지만 그보다 상승할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다.
- 이 기관의 CIO인 Mark Dowding은 “우리는 수익률 곡선의 장기 구간에서 금리 상승의 리스크를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 현재 30년물 금리는 4.5 베이시스 포인트 낮은 4.875%, 10년물은 4 베이시스 포인트 떨어진 4.412%에서 거래되고 있다.

WSJ 기사

[뉴욕/뉴저지 메트로]

WSJ: NJ Transit Workers Go on Strike: What to Know 뉴저지 트랜짓 기관사들 파업...통근자들 불편 겪어

- 임금 인상 갈등으로 뉴저지 트랜짓 기관사들이 파업을 시작하면서 뉴저지와 뉴욕, 필라델피아 통근 이용자들이 버스로 갈아타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 뉴저지 트랜짓은 버스와 메트로 노스 레일로드 등 대체 교통수단을 모색하고 있지만 해당 효과는 전체 뉴저지 트랜짓 이용자들의 20% 정도만 도움을 받고 있다.
- 이번 분쟁은 2020년~2028년의 임금 인상 관련 한 것으로 뉴저지 트랜짓 기관사들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동등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WSJ 기사

[물류]

WSJ: Shipping Rates Rise as U.S.-China Trade Truce Drives Import Surge 미·중 관세 휴전으로 수입물량 늘면서 컨테이너 운임 상승

- 미 수입업자들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 관세가 3개월간 휴전 상태가 되면 중국산 수입을 늘리는 가운데 태평양 컨테이너 선박 요금이 오르고 있다.
- 이번 주에 중국에서 미 서부 항만까지 요금은 8% 인상됐으며 20피트 컨테이너 당 3천 불에 도달할 수 있다.

WSJ 기사

[주택]

YahooFinance: US single-family housing starts, building permits fell in April 미국 단독주택 착공, 9개월 만에 최저치

- 4월 미국 단독주택 건축이 2.1% 감소한 92만 7천 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7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수입 자재에 대한 관세와 높은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건축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 Nationwide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Ben Ayers는 “건설업체들은 올해 건설 비용과 미래 수요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신규 착공을 주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또한, 이러한 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여름까지도 착공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 또한, 전국 주택 건설업자 협회 설문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건설업자들 “자재 가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택 가격을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한다.

YahooFinance 기사

[미 행정부 정책]

The economist: Republicans have a plan to add trillions of dollars to the national debt
공화당, 약 3.7조 달러의 국가 부채를 증가시킬 법안 추진

- 미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세금 개혁안이 시행되면 향후 10년간 국가 부채가 약 3.7조 달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트럼프의 세금 감면 혜택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 트럼프는 팀 소득, 초과 근무 소득 등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고 고령자들에게 높은 기본공제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신생아를 위한 세금 우대 저축 계좌인 ‘MAGA’ 계좌를 신설하고 각 계좌에 1천 달러의 지원을 내걸었다.
- 공화당은 이러한 상기 세금 감면 혜택들을 포함하는 법안 초안을 만들었다.
- 또한, 해당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재정적자 규모가 늘어나는데, 대신에 약 9백 억 달러의 저소득층 건강 보험 프로그램(Medicaid) 등의 예산을 삭감하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확대된 전기차 등 일부 청정에너지 세금 공제를 폐지할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The economist 기사

[무역 전쟁]

Bloomberg: Trump Says US to Set Tariff Rates for Other Nations in Weeks
트럼프, “수주안에 다른 국가들 관세율 정하겠다”

- 트럼프는 향후 2주내지 3주에 걸쳐 다른 국가들과의 관세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이유로 그는 모든 파트너들과의 협상을 할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 현재 150개 국가들이 관세 협상을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 이와 관련 미 재무장관과 상무장관은 관련 관세 국가들에게 미국의 관세율을 통지할 것이라면서 이에 어필 할수 있는 여지는 주겠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US Treasuries, Re-Imported Japanese Cars Seen as Trade Leverage
“일본, 미 관세 협상 카드로 미 국채 재투자 및 자동차 재수입 가능성”

- 일본의 영향력 있는 야당인 국민민주당의 Yuichiro Tamaki 총재는 인터뷰에서 “일본은 미국의 관세 면제를 요구하는 조건으로 미국 국채에 재투자하고 미국 내에서 생산한 일본 자동차를 수입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현재 일본은 미 국채 1조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미국의 관세 부과 면제를 받기 위해 만기 미 국채 수익금을 조장기 미 국채에 재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기 미 국채에 대한 재투자가 미 국채 금리 상승을 억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미 정부가 장기 미국채 금리 상승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는 매력적인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또한, 일본 자동차를 미국에서 생산하고 이를 다시 일본이 수입하는 것은 미일 무역적자를 감소시키고 미국 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 이러한 아이디어에 대형 일본 자동차 제조사가 동의했기 때문에 이 또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Bloomberg 기사

WSJ: EU Exports to U.S. Surge Ahead of Trump Tariffs
3월 EU 대미 수출, 사상 최고치 달성...관세 시행 전에

- 유럽연합(EU)의 3월 대미 상품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59.5% 증가해 약 798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업들이 4월 초 관세 인상에 대비해 물품을 비축하려 했기 때문이다.
- 수출 증가의 상당 부분은 대형 제약 산업을 포함한 화학 제품이 차지했으며, 계와 차량 또한 이에 기여했다.

WSJ 기사

[글로벌 경제]

WSJ: Japan's Economy Shrinks for First Time in a Year
일본 경제, 1년 만에 처음으로 경제 둔화

- 1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의 GDP가 전 분기 대비 0.2% 감소했다. 예상했던 0.1% 위축보다 크며, 전년도 4분기 0.6% 성장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 순수출이 0.8% 감소했으며,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민간 소비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일 경제부 장관 Ryosei Akzazawa는 “관세 우려가 아직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최근 정부 조사에서 앞으로 소비자의 구매 심리가 악화될 가능성이 나타났다.

WSJ 기사

[보고서]

파월 "팬데믹 후 경제환경 변화...공급 충격의 시기에 진입"
연준 5년 주기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편 착수...환경변화 반영
파월 "향후 인플레 변동성 확대 가능성...탄력적 대응 가능하게 할 것"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환경이 변화했다며 이런 변화를 반영해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 운영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 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파월 의장은 이날 워싱턴DC 연준 청사에서 열린 연구 콘퍼런스 개회식에서 “2020년 이후 경제 환경이 크게 변화했다”며 “우리의 검토는 이런 변화에 대한 평가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은 5년 전(前) 현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확정했으며, 올해 들어 새 개편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 상태다. 연준은 5년마다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재검토하고 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